



죽음
EBS 데스 제작팀
지음

죽음의 실체를 직면하라

현대사회는 죽음을 삶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사실 죽음은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맞이하는 갑작한 죽음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이상적인 죽음. 이 두 죽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최근 방영된 큰 방향을 일으킨 EBS 다큐프라임 '죽음'이 책으로 나왔다. 죽음에 관한 최신 논문과 국내외 100여 명의 학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물리학, 의학, 심리학, 역사학, 철학적 논증과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탐사한다.

제작팀은 사후 세계와 의식에 대해서도 여러 과학자들의 논문과 자료를 통해 추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상에서 죽음의 '실체'를 직면할 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웰다잉'이 '웰빙'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책값·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다산의 한평생
정규영 지음

현손이 쓴 다산의 일대기

다산의 현손(玄孫·손자의 손자) 정규영(1762~1863)이 다산 사후 85년이 지난 1921년에 편찬한 다산의 일대기 '사암선생연보'가 '다산의 한평생 : 사암선생연보'라는 이름으로 완역 출간되었다. 성균관대 명예교수 송재소 씨가 주석을 보강해 이번 나온 '다산의 한평생'은 출생부터 사망하기까지의 다산의 인생이 담겨 있다.

책에는 다산의 대표적인 저술의 서문이 거의 수록돼 있어 이 연보만으로도 다산의 일생과 학문의 개요를 충실히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시기의 정치적 상황, 다산의 관직생활과 교유관계, 유배 전후의 상황 등이 수록돼 있다. 부제로 붙은 '사암선생연보'에서 '사암'(侯菴)은 다산의 또 다른 호다. 사암은 "백세 뒤의 성인을 기다려 물어보더라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책값·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혀끝의 추억... 당신의 잊지 못할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

윤덕노 지음



"돌솥비빔밥의 유래를 알려면 먼저 돌솥밥의 기원부터 살펴야 한다. 곶돌을 갈아 만든 솥에 밥을 지으면 뜬이 끓고 루 들고 밥을 지을 때 잘 차지도 않을뿐더러 먹을 때 쉽게 식지도 않는다. 게다가 밥맛도 좋고 누룽지와 송송마져 구수하다. 밥은 무쇠 가마솥에 지은 밥이 으 뜬이어서 옛날 사람들은 모두 가마솥 밥을

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마솥밥은 시골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주로 먹었다. 궁궐에서 수라상을 따로 받는 임금이나 지체 높은 양반집에서는 솥으로 만든 새우나 돌솥에 따로 밥을 지어 올렸다. 그 중에서도 밥 짓는 솥으로는 돌솥을 가장 선호했다." (본문 중에서)

밥은 삶이다. 역사이자 문화다. 삼시 세끼 먹는 음식만큼 풍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도 드물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 하나다. 식욕이 시작,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같은 모든 오감과 결부된다는 의미다.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음식이 있다. 흔히 말하는 '솔 푸드(soul food)'는 특정한 기억과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소풍날 어머니가 짜주셨던 김밥, 새벽기차를 타고 가다 먹었던 국수, 졸업식 날 중국집에서 먹었던 짜장면 등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뇌리에 남아 있다. 왜 그럴까? 혀끝은 미각과 더불어 추억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추억은 곧 스토리다. 모든 음식에 삶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음식평론가이자 삼성경제연구소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 푸드 스토리'를 진행 중인 윤덕노씨가 펴낸 '맛있는 한국 생활사'는 한국인이 사랑한 100가지 음식을 소개한다. 저자는 고사부터 근·현대의 신문·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음식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각각 음식에 얽힌 사연은 역사만큼이나 다채롭다. 음식이 삶이자 역사이며 문화인 까닭이다.

조선시대 임금도 물에다 밥을 말아 들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이 물만밥(물을 만 밥)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수라상에 물만밥만 올리도록 했는데 무려 40일 이상을 먹었다는 것이다.

신하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중지가 해야 한다고 간청했지만 성종은 정중히 물리쳤다. "세종 때는 풍년이 들었어도 물에 만 밥을 수라상에 올렸는데 지금처럼 가뭄이 든 때에 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고 무엇이 해롭겠나"며 신하들의 간청을 거절했다.

요즘의 음식 가운데 찻물에 밥을 말아 꿀비와 함께 나오는 정식이 조선시대 물만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보면 음식의 역사도 돌고 도는 모양인가 보다.

선짓국에 대한 이야기도 자못 흥미롭다. 선지는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로, 역사 이래로 인류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진동 해장국 골목 덕분에 선지해장국이 유명해졌다. 1930년대 신문에 '오늘의 요리'로 선짓국 끓이는 법이 소개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선지가 얼마나 유용한 음식이었는지 는 정기간 몽골군 사래에도 나와 있다. 그들은 열을 일정으로 출정할 때 다수의 말을 함께 끌고 다녔다. 휴식 중에 몽골 기병들은 말의 정맥에 상처를 내 혈액을 마셨다. 한 마리당 0.5리터의 혈액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열을 견뎌서 말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병사들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책에는 음식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동짓날 팔죽을 먹는 진짜 이유, 잔칫날 국수를 먹는 까닭, 수제비가 옛날 양반의 고급 별미였다는 얘기 등을 접하고 나면 음식이 음식 그 이상의 '영양소'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부터는 점심으로 뭘 먹을까 고민할 게 아닌 것 같다. 하나의 스토리를 접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매우 고민은 사라지지 않을까.

〈값이나무·1만8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돌솥 비빔밥



동지국



선짓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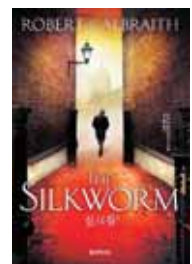


매생이 국



삼겹살

'해리포터' 롤링이 가명으로 쓴 탐정소설



실크웜 1·2

로버트 갈브레이스 지음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로버트 갈브레이스라는 가명으로 쓴 '실크웜'이 화제를 낳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 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작품으로, 지난해 발표한 '쿠쿠스 콜링'에 이은 J.K. 롤링의 두 번째 실러블이다. 작가는 '해리포터'의 후광이 아닌 순수한 작품만으로 평가받기 위해 가명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실크웜' 또한 전작 실러블 '쿠쿠스 콜링' 못지않은 정교한 플롯과 속도감 있는 문체가 빛을 발한다. '해리포터'를 읽으며 성장한 기존 팬들의 기대에 답하는 J.K. 롤링의 야심작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소설은 사라진 소설가 오언 퀴를 찾아달라며 그의 아내가 사실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조사가 진척되면서 오언 퀴의 실종에는 아내가 모르는 모종의 진실이 숨겨져 있음이 점차 드러난다.

오언 퀴는 그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을 소설에 등장시켜 독설과 신랄한 묘사로 가득 채운다. 그러나 마지막 원고를 탈고할 즈음에 갑자기 실종되고 만다. 소설이 출판되면 인생을 망쳐버릴 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언 퀴의 입을 막

기 위해 모종의 일을 벌였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국 오언 퀴는 영거적인 정황 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발견된다. 살인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돌입한다. 주인공 사실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는 전직 군인 출신으로 건강한 체구를 자랑하는 사내다.

그에게 남편을 찾아달라며 무턱대고 찾아온 여자는 보수를 받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녹록치 않다.

남편이 어디선가 글을 쓰고 있을 거라는 아내의 말과 달리, 오언 퀴는 신분이 노출된 사람들을 한사람씩 조사하게 되고... 과연 소설가는 작품 때문에 살해당한 것일까? 〈문학수첩·각 1만2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플리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해법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지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넘어 국제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해결은 커녕 '위안부'를 공격하는 우익적인 사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가 기획하고 엮은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한국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감수성을 진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자리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은 본질과 논쟁의 핵심,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왜곡되거나 망각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책은 전쟁, 여성, 제국, 젠더 등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또한 양국의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일본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암암적인 목소리로 들려준다. 〈휴머니스트·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성 5회 연속 선정

www.geumsoojang.co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평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위안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